정보

Joseph Haydn: Symphony No. 95 in C minor, Hob. I:95
작곡가: Joseph Haydn (1732–1809)
작품명: Symphony No. 95 in C minor, Hob. I:95
장르: 관현악 교향곡
작곡 시기: 1791년
초연: 1791년 런던 Hanover Square Rooms의 Salomon 시즌
초판 /전승: 1795년 Offenbach, Johann André 초판과 이후 Haydn Complete Edition 계열 판본 Wikipedia: https://en.wikipedia.org/wiki/Symphony_No.95(Haydn)

Joseph Haydn의 C단조 교향곡 제 95번, Hob. I:95는 1791년 런던을 위해 쓴 네 악장 교향곡이다 . 런던
교향곡 열두 곡 가운데 유일하게 단조로 되어 있고, 느린 서주 없이 첫 다섯 음을 강하게 내리치며 곧바로 시작한다. 약 20분 동안 C단조의 긴장과 C장조의 밝음을 오가며, E♭장조 주제와 변주로 이루어진 Andante, 독주 첼로가 돋보이는 미뉴에트의 트리오, 다성적 기교를 품은 Vivace 피날레를 차례로 들려준다. 작은 규모 안에 하이든의 엄격함과 유머, 실내악적인 친밀감이 함께 들어 있는 작품이다.

개요
제 95번은 하이든이 1790년 말 런던에 도착한 뒤 첫 번째 Salomon 시즌을 위해 마련한 교향곡 중 하나다. 첫 공연은 1791년 런던 Hanover Square Rooms에서 열렸으며, 정확한 월과 날짜보다 이 도시의 공개 연주회가 작품의 출발점이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. 하이든은 왕실이나 귀족의 사적인 공간이 아니라 많은 청중이 모인 콘서트홀을 염두에 두고, 짧은 동기와 선명한 대비로 음악을 조직했다.

유일한 단조 런던 교향곡이라는 특징은 첫 순간부터 드러난다. 다른 런던 교향곡에서 자주 만나는 느린 서주를 생략하고, C단조의 거친 유니즌을 먼저 던진다. 하지만 작품은 어둠 속에만 머물지 않는다. 두 번째 악장에서 E♭장조의 평온을 마련하고, 미뉴에트의 C장조 트리오에서 독주 첼로를 등장시키며 , 피날레에서는 C장조의 속도와 광택으로 결말을 향한다.

런던에서의 작곡과 초연

Johann Peter Salomon의 초청으로 하이든은 1791년 런던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. 제 95번은 그 시즌 말 무렵 Hanover Square Rooms에서 연주되었고 , 이후 제 93번부터 제 104번까지 묶이는 “런던 교향곡 ”의 첫 여섯 곡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. AllMusic은 이 곡이 D장조 교향곡 제 96번과 함께 프로그램에 올랐을
가능성을 언급하지만 , 당시 공연 전체의 순서를 작품의 일부처럼 확정할 필요는 없다.

이 작품이 다른 런던 교향곡보다 덜 대중적이었다는 평도 있다. LA Philharmonic은 당시 청중이 C단조의 무게에 익숙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, 첫 악장의 단호한 시작과 C장조 결말 사이에 놓인 미묘한
균형을 강조한다. 인기가 적었다는 말이 음악의 가치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는다. 제 95번의 독특함은 바로 그 어두운 조성과 짧은 형식 안에서 하이든이 청중을 계속 끌어당기는 방식에 있다.

편성 ·출판
편성은 플루트 한 대, 오보에 두 대, 바순 두 대, 호른 두 대, 트럼펫 두 대, 팀파니, 현악이다. C단조 작품이면서 트럼펫과 팀파니를 사용한다는 점도 런던 교향곡 중 예외에 해당한다. 금관과 타악기는 단조의 무게를 공적인 에너지로 바꾸고, 현악과 목관은 그 안에서 짧은 대화와 섬세한 색채를 만든다.

IMSLP는 1795년 Offenbach의 Johann André를 최초 출판으로 기록하며, 1855년 무렵 Breitkopf & Härtel 과 1965년 Haydn-Mozart Presse 판본도 별도로 소개한다. Henle와 Bärenreiter의 연구용 악보와 총보는 Haydn Complete Edition의 음악 텍스트를 따른다. 악보를 비교할 때는 제 1악장의 빠르기를 Allegro moderato로 적은 자필과, 일부 목록의 Allegro 표기를 함께 볼 수 있다.

네 악장

1. Allegro moderato
첫 악장은 서주 없이 다섯 음의 강한 유니즌으로 시작한다. 잠시 침묵한 뒤 제 1바이올린이 점음표를 품은 부드러운 대답을 내놓는다. 단호한 호출과 진지한 응답이 하나의 주제 안에 나란히 들어 있기 때문에, 시작부터 음악의 성격이 두 갈래로 나뉜다.

전개부에서는 처음의 동기가 여러 성부로 옮겨 가며 긴 대위적 작업을 벌인다. 상대적으로 온화한 E♭장조 제 2 주제가 나타나도, 첫 동기의 힘은 계속 남아 있다. 재현부에서는 이미 충분히 다뤄진 다섯 음을 그대로
되풀이하지 않고, 점음표의 대답으로 시작해 C장조의 제 2주제로 곧장 향한다. 단조로 시작한 악장이 장조로 끝나는 이 전환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, 긴장을 다른 빛으로 바꾸는 하이든의 솜씨다.

목관은 강한 주제에 맞서 독립적인 장식을 과시하기보다 , 현악 사이에 짧은 색채를 끼워 넣는다. 격렬한 음향과 섬세한 논평이 번갈아 오면서, 악장은 심각함을 유지하면서도 지나치게 무거워지지 않는다. Hyperion의 Richard Wigmore는 첫 동기를 이전 C단조 교향곡 제 78번과 연결되는 모토로 보지만, 이는 작품을 듣는 하나의 관점으로 이해하면 충분하다.

2. Andante

두 번째 악장은 E♭장조의 Andante다. 하이든의 자필에는 Andante라고 적혀 있고, 후대 악보와 음반에서는 Andante cantabile라는 이름도 흔히 사용한다. 첫 주제는 가볍게 흔들리는 리듬을 품으며, 제 1악장의 거친 시작과 전혀 다른 호흡을 마련한다.

이 악장은 주제와 변주로 이루어진다 . 첫 변주에서는 독주 첼로가 선율을 앞에 세우고, 현악의 부드러운 움직임이 그 주변을 채운다. 두 번째 변주는 E♭단조로 잠시 어두워져 첫 악장의 긴장을 되살린다. 세 번째 변주에서는 바이올린의 빠른 음형이 노래를 가볍게 들어 올린다. 같은 주제가 악기와 조성에 따라 달라지는 과정이 이 악장의 중심이다.

변주가 끝난 뒤 첫 선율이 돌아오는 순간, 음악은 처음보다 더 많은 기억을 품는다. 평온함은 어둠을 모르는 상태가 아니라, 한 번 어두워졌다가 다시 맑아진 상태로 들린다. 독주 첼로의 존재는 다음 미뉴에트 트리오를 미리 암시하면서 , 교향곡 안에 작은 실내악 무대를 마련한다.

3. Menuetto – Trio

C단조의 미뉴에트는 전통적인 춤 형식의 외관을 가졌지만, 구절의 길이와 강세가 예측을 흔든다. 첫 부분은 보통의 여덟 마디나 열여섯 마디보다 긴 스물두 마디로 이루어져 있다. 당김음과 단단한 악센트가 걸음에 긴장을 주며, 우아한 궁정무도회보다 날카로운 교향곡의 중간 악장에 가깝게 만든다.

트리오는 C장조로 옮겨 가고, 독주 첼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선율을 이끈다. 갑자기 한 연주자의 목소리가 오케스트라 앞에 나타나면서 , 공적인 음향이 친밀한 실내악으로 좁혀진다. 첼로는 과장된 협주곡 카덴차를 펼치지 않지만, 호흡이 긴 선율로 단조 미뉴에트의 긴장을 풀어 준다.

미뉴에트가 돌아오면 C단조의 윤곽이 다시 선명해진다 . 그러나 트리오를 거친 뒤에는 같은 단조가 처음보다 덜 폐쇄적으로 느껴진다. 하이든은 밝은 중간부를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, 다음 피날레로 넘어가기 위한 음향의 전환으로 사용한다.

4. Finale: Vivace

피날레는 C장조의 넓고 평온한 선율로 출발한다. 단조 교향곡의 마지막 악장이라고 예상하면 의외로 밝은 시작이다. 곧 여러 성부가 첫 다섯 음의 윤곽을 변형해 주고받으며 , 빠른 8분음표와 다성적 겹침이 흐름을 밀어붙인다 .

이 악장은 소나타 형식과 론도적 반복의 성격을 함께 보인다. 주제가 돌아올 때마다 관악과 현악의 역할이 달라지고, 중간부에서는 C단조가 폭풍처럼 끼어든다. 반음계적 선율은 C장조의 평온이 영원히 보장된 것이 아님을 잠시 일깨우지만 , 음악은 다시 밝은 조성으로 방향을 돌린다.

피날레의 다성법은 엄격한 공부처럼 들리지 않는다. 각각의 선율이 재빨리 움직이고, 잠깐 멈춘 뒤 다시 합류하면서 연극적인 장면을 만든다. Hyperion은 이 악장의 대위적 기교가 Mozart의 「Jupiter」 교향곡과 비교되어 왔다고 설명한다. 직접적인 모방으로 단정하기보다 , 두 작품이 C장조의 장엄함과 푸가적 활기를 함께 보여 준다는 비교로 받아들이는 편이 자연스럽다 .

마지막에는 트럼펫과 팀파니가 현악과 관악의 힘을 모아 C장조를 확정한다. 첫 악장의 다섯 음이 어둠 속에서 던진 호출이었다면 , 이곳에서는 같은 집중력이 환희의 행진으로 바뀐다. 단조를 지워 버린다기보다 , 그 긴장을 통과한 뒤 얻는 밝음이다.

단조와 장조 사이
제 95번의 큰 흐름은 C단조와 C장조의 교대다. 첫 악장은 C단조의 강한 유니즌에서 출발해 C장조로 닫히고, Andante는 E♭장조의 평온과 E♭단조의 그림자를 오간다. 미뉴에트는 C단조로 돌아오지만 트리오는 C장조의 독주 첼로를 내세우며, 피날레는 처음부터 C장조를 선택한다.

이 조성의 움직임은 어둠에서 빛으로 직선적으로 올라가는 서사가 아니다. 밝은 순간에도 첫 악장의 기억이 남고, 단조로 돌아갈 때도 이미 첼로와 목관의 온기를 경험한 뒤다. 하이든은 한 조성의 감정을 오래
유지하기보다 , 서로 다른 표정을 빠르게 교차시켜 긴장과 유머를 동시에 만든다.

런던 교향곡 안의 위치
런던 교향곡 열두 곡은 대규모 공개 연주회와 국제적 청중을 위해 쓰였다. 제 95번은 그 안에서 유일한 단조 작품이며, 느린 서주 없이 바로 시작한다는 점까지 겹쳐 특별한 자리를 차지한다. 그렇다고 다른 작품과 분리된 실험은 아니다. 하이든은 이 곡에서도 주제의 반복과 변형, 관악의 색채, 춤 형식, 빠른 피날레라는 고전
교향곡의 재료를 충실히 활용한다.

제 95번의 차별점은 익숙한 재료를 더 압축된 시간 안에 배치하는 데 있다. 첫 악장의 호출, Andante의 변주, 첼로 트리오, C장조 피날레가 약 20분 안에 이어진다. 그래서 이 작품은 거대한 교향곡의 축약판이라기보다 , 하이든이 형식과 청중의 기대를 얼마나 짧은 시간에 조절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독립적인 작품으로 들린다.

주요 레코딩
Roy Goodman / The Hanover Band (Hyperion CDH55126): 제 95번이 18분 40초로
수록되어 있다. 시대악기 앙상블의 가벼운 발음과 빠른 흐름 속에서 첫 악장의 대위적 긴장과 첼로
트리오를 또렷하게 들을 수 있다.
Richard Hickox / Collegium Musicum 90 (Chandos CHAN0655): BBC Music Magazine
은 외곽 악장에 충분한 여유를 두면서도, 불안한 첫 악장의 요소를 하나로 묶고 C장조 피날레의
다성성을 선명하게 만든다고 평했다. Andante와 미뉴에트의 대비도 차분하게 드러난다.
Frans Brüggen / Orchestra of the 18th Century: ClassicsToday는 첫 악장의 엄격한 선과 피날레의 푸가적 성부, Andante의 독주 첼로를 높이 평가했다. 현악을 좌우로 나눈 편성과 시대악기 관악이 선율의 교차를 분명하게 만든다.
Howard Shelley / Orchestra della Svizzera Italiana: Hyperion의 런던 교향곡 전집에 수록되어 있으며, 제 1악장 약 6분 23초, Andante 약 5분 17초, 미뉴에트와 트리오 약 4분 40초,

피날레 약 3분 55초로 안내된다. 더 넓은 현대 오케스트라 음향에서 C단조와 C장조의 대비를
비교할 수 있다.

주요 자료

IMSLP, Symphony No. 95 in C minor: 악장 ·편성 ·마디 수 ·초판과 공개 악보.
Hyperion Records, Symphony No. 95: 1791년 초연 범위, 악장별 구조와 Roy
Goodman·Howard Shelley 녹음 정보.
Los Angeles Philharmonic, Symphony No. 95: 첫 다섯 음, C단조와 C장조의 대비, 악장별 해설. AllMusic, Symphony No. 95: 런던 작곡 ·초연 맥락, 편성, 네 악장의 상세 설명.
Bärenreiter, Symphony No. 95: Haydn Complete Edition 기반 총보 ·연주 자료.
Henle, Symphony c minor Hob. I:95: Urtext 판본과 비평적 전승.
BBC Music Magazine, Haydn London Symphonies: Hickox·Collegium Musicum 90 음반 평. ClassicsToday, Haydn Symphonies/Brüggen: Brüggen·Orchestra of the 18th Century 음반
평.

Revision #1
Created 2026-10-04 10:11:44 UTC by 안준영
Updated 2026-10-04 10:11:44 UTC by 안준영